

# 교육혁신원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9기 소개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는 교육혁신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학생 활동 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생 서포터즈입니다. BOO스터는 학생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발신합니다. 또한, 교육혁신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교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고민과 도전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BOO스터 9기 기장 김예진입니다. 처음에는 미대에 다녔지만, 전공에 대한 고민 끝에 편입을 선택했어요. 새로운 학교에 오면서 어문과 상경계열 등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BOO스터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일들을 좋은 팀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진로 때문에 불안감을 겪고 있다면, BOO스터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시행착오와 경험이 결국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날까지, 우리 함께 "BOO스터"처럼 달려가요!



**김예진**  
기장  
루마니아학과, 21



**정인서**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20

###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BOO스터 9기 정인서입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 속에서 흔들렸던 저에게 BOO스터 활동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건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인가?'하고 느꼈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면서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겼고, 전공이 다른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협업하며, 혼자였다면 못 했을 도전을 해낼 수 있었어요. 저는 '변명은 없다'는 말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만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된다고 믿어요.



**한건우**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9

### “도전하는 만큼, 스스로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OO스터 9기 한건우입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은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강연을 찾아다니며 이쪽 분야에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을 얻고자 BOO스터에 지원했는데,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저만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고, 절실했던 영상 포트폴리오도 차곡차곡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BOO스터와 같은 값진 경험을 쌓아가면서 멋진 커리어를 향해 후회 없이 즐겁고 싶습니다!



**함수인**  
Social Science & AI융합전공  
24

### “도전은 늘 두렵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BOO스터 9기 함수인입니다. 전공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중전공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지만, 제 꿈은 방송 분야에 있어요. 외대 교육방송국(FBS)에서 방송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BOO스터 활동을 통해 뉴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두렵지만 직접 시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경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황도연**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24

### “해맨 만큼 내 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OO스터 9기 황도연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목표가 사라지니 막막했고, 진로 고민도 많아졌죠. 그때 HUFSAbility 안의 프로그램들을 찾기 시작했고, BOO스터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갔습니다. '귀찮을까 봐', '안 될까 봐'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게 많거든요. 예상 못한 내 장점을 발견하고, 그게 쌓이면 분명 방향이 보일 거예요.



**김별**  
정보통신공학과  
25

### “힘차게BOO스터ON!”

안녕하세요. 저는 BOO스터 9기의 막내, 김별입니다. 학교에 적응하던 중 HUFSAbility를 통해 BOO스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회의, 기획, 촬영, 편집까지 혼자였다면 시도조차 못 했을 일들을 BOO스터를 통해 경험하고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BOO스터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을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됐고, 조금씩 제가 가고 싶은 방향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직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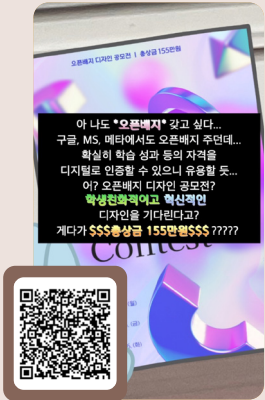


**김수연**  
경영학부  
25

### “실패도 고민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BOO스터 9기 김수연입니다! 더 잘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 반수를 해서 지금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당시에는 뒤처질까 많이 불안했지만, 제 관심사를 찾을 수 있었기에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BOO스터 활동을 하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큰 힘이 됐고, 혼자였다면 못 했을 일들도 함께 해내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진로 고민도, 실패도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 교육혁신원 학생교육혁신단 9기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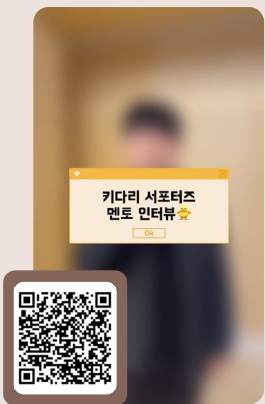
BOO스터 9기로서 처음 기획하고 제작한 「오른배지 디자인 공모전」 홍보 영상은 세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오른배지가 어떤 제도인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공모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과 연출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맡아 만든 콘텐츠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공식 계정에 게시되고, 직접 교내 홍보까지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처음 맡은 영상이라 부담도 컸지만, 그래서 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할 수 있었고, 그 경험 덕분에 이후 영상 기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별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첫 작업이었던 「키다리서포터즈 OT 현장스케치」입니다. 키다리서포터즈가 처음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OT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무대를 이끄신 강사님과 진지하게 경청하던 학우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대 앞으로 직접 나서며 촬영했던 기억이 특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촬영 및 제작은 처음이었기에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민하며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배움이 되었고, 현재 부업으로 활동 중인 영상 제작 분야에 도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건우



BOO스터 9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바로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인터뷰 릴스는 BOO스터로서 처음 참여한 행사 지원 활동이자, 제가 직접 편집·제작한 첫 인터뷰 영상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뷰 참여자를 어떻게 섭외할지, 어떤 흐름으로 촬영해야 자연스러울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아내며 점차 영상의 틀을 잡아갈 수 있었고, 키다리 삼행시와 같은 유쾌한 요소를 더해 인터뷰 현장의 생동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BOO스터 멤버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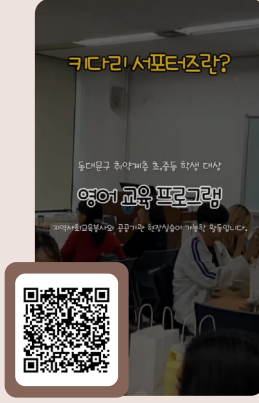
BOO스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BOO루마블' 홍보 콘텐츠 촬영이었습니다. 당시 BOO스터 멤버와 BOO인형탈을 쓰고 직접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촬영했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나가던 학우분들이 웃어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힘든 과정이 색이 더해질 정도로 즐겁고 보람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한국외대니까 가능했던 유일무이한 활동'이라 생각하여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쁜 풍경을 해당 나라 배경음악과 함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BOO루마블' 활동! 이처럼 단순한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넘어, 함께 한국외대의 순간들을 만들어간 장면들이 존재했기에 'BOO스터'라는 이름도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진



'외대생 영어브릿지' 릴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상 흐름을 구성하고,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특히 짧은 릴스 형식으로 제작하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를 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편집 과정에서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인상이 깊었습니다. 완성된 콘텐츠에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재미를 느꼈고, 이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현장 스케치 영상과 비교했을 때 조화수도 잘 나와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수연



키다리 서포터즈는 동대문구의 지역 아동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생 선생님들입니다. 키다리서포터즈의 중간 워크숍에서 서포터즈들이 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부스터의 멤버로서 이 활동을 더 알리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에 임하며 참여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워크숍의 진행과정을 촬영하고, 정리하고, 편집하며 부스터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느끼며,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편집에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 없고 어려워하던 것을 팀원들과 혁신원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편집을 마무리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황도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릴스 영상으로 제작했던 「BOO스터 9기 소개 영상」입니다. 2025년 4월, SNS에서 유행하던 '나니가스키(ナニガスキ)' 릴스를 활용해 BOO스터 9기 멤버들을 유쾌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건 BOO-스-터'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린 자기소개를 담았고, 시험 기간에 지친 학우분들께 잠시나마 웃음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획한 영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9기 BOO스터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학우분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 직접 기획, 촬영, 출연까지 참여하며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정인서

